

일본과 한국의 만화에서 뮤지컬로의 매체전환 연구 -일본의 2.5 차원뮤지컬과 한국의 웹툰컬을 중심으로-

이주영*

*백석대학교 문화예술학부

e-mail : ka92ne@naver.com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Japanese and Korean Cartoon into Musicals -Focusing on the 2.5-Dimensional Musical of Japan and the Korean Webtooncal-

Joo-Young, Lee*

* BAEKSEOK UNIVERSITY, Division of Culture & Art

요 약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매체 전환 중 만화를 근간으로 다양한 매체로의 전환은 최근 들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일본의 2.5 차원 뮤지컬과 한국의 웹툰컬은 매우 주목 받고 있다. 매체전환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만화의 뮤지컬로의 전환에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연의 움직임은 보여질 것이므로 이에 관련된 심도 있는 다양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1. 서론

최근 들어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매체 이동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방송과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 뿐 만이 아니라 콘텐츠와 수신자가 직접 만나는 무대예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매체 전환 중 최근 십 여 년간 두드러지는 것은 만화를 근간으로 한 매체 전환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웹툰을 근간으로 매체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며, 그 중 일본의 경우 세계적인 만화 강국이기에 한국과 비교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2. 매체 전환에 관한 연구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매체 전환에 관련된 연구는 적지 않으나 최근에 이루어지는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그 깊이는 다른 연구에 비교하여 그리 깊지 않다. 우선 매체 전환을 의미하는 어휘도 다양하고 그 개념도 학자에 따라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것에 관련된 연구가 많다. 나라별로 이것을 칭하는 말도 다양한데 한국의 경우 OSMU(One Source Multi Use), 일본의 경우 미디어 믹스 (メディアミックス, Media Mix), 영어권의 경우 트랜스미디어(트랜스미디어 프랜차이즈)라고 부른다. 현재 매우 혼재되어 사용되는 실정이다, “문화콘텐츠의 대표적인 특징인 OSMU는 성공한 원작 콘텐츠를 기반으로 그것의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다른 미디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트랜스미디어 프랜차이즈는 단계적이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각각의 콘텐츠가 개별적 세계를 표현하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통합적 세계가 완성되는 것을 뜻한다.” [1]

또한 현재 OSMU, 미디어믹스, 트랜스 미디어를 주제로 연구된 학술적 자료의 양은 방대하다. 그리고 장르간의 매체 전환에 관련된 연구도 다양하다. 드라마나 영화와 관련된 사례 분석의 양은 상당하다. 특히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는 연구는 웹툰과 같은 만화를 근간으로 한 매체전환에 대한 연구이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 드라마나 영화로의 전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연 콘텐츠 중 뮤지컬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뮤지컬로의 전환에 관련된 연구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일본의 2.5차원 뮤지컬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같은 만화콘텐츠가 매우 발전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로의 확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반영하듯 2014 년도에는 일반사단법인인 「2.5 차원 뮤지컬협회」가 설립되었으며, 협회 대표이사로는 ‘네르케플레닝(Nelke Planning)’의 대표이사인 마쓰다마코토(松田誠)가 취임하였다. “2.5 차원 뮤지컬이란 2 차원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혹은, 만화를 원작으로 3 차원의 무대콘텐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

2.5 차원 뮤지컬의 역사는 1966 년 『사자에상(サザエさん)』부터 시작된다. 이후 1974 년에는 다카라스카 가극단(宝塚歌劇団)에 의해 한국에서도 흥행에 성공했던 애니메이션인 『베르사이유의 장미(ベルサイユのばら)』가 제작되었으며 이 작품은

지금도 일본 내에서 꾸준히 상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애니메이션이 어린이만을 위한 장르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근간으로 한 뮤지컬 또한 가족극이 아닌 성인극으로 인정받고 있다. “2.5 차원 뮤지컬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은 『테니스의 왕자(テニスの王子様)』 『세일러문(美少女戦士セーラームーン)』 『나루토(NARUTO)』이다. 이 작품들의 특징을 보면 우선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출연캐릭터가 많다.” [3] 세계적으로도 자국의 애니메이션이 사랑받는 일본의 경우 2.5 차원 뮤지컬을 관광 자원으로도 바라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5년에는 전용극장을 개관하여 『라이브 스펙터클 나루토(NARUTO)』를 상연하였다.

더욱이 2.5 차원 뮤지컬은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2016년 말레이시아에서 『나루토』를 상연하였으며, 2019년 3월에는 뉴욕 플레이스테이션극장에서 뮤지컬 『세일러문』이 공연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만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둔 뮤지컬을 제작함으로써 국제 비즈니스까지 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한국의 웹툰컬

만화는 인쇄를 하는 출판만화에서 디지털 만화로. 그것은 온라인 만화인 인터넷 만화로, 그리고 그것은 웹툰으로 성장하고 변화하였다. 특히 웹툰은 침체에 빠졌던 만화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것의 부가가치는 상상이상이다. 웹툰의 매체 전환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출판만화 단행본을 시작으로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 대부분의 콘텐츠로의 변형이 이루어진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2.5 차원 뮤지컬이 막을 올리고 있으나 국내에선 2.5 차원 뮤지컬 보다는 웹툰컬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뮤지컬을 고유명사인 웹툰컬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국내에서의 웹툰컬은 2007년 제작된 『위대한 캣츠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소극장 공연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7년 대형 창작물을 주로 제작하던 제작사인 ‘에이콤’에서도 이례적으로 웹툰컬 제작에 뛰어들었으며 이어 ‘서울예술단’의 창작가무극(뮤지컬)으로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_저승편』이 제작되었다. 특히 『신과 함께_저승편』의 경우, 영화로도 매체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뮤지컬 또한 흥행에 성공하였다. “웹툰이 지속적으로 뮤지컬로 옮겨지는 이유는 뮤지컬계가 소설, 영화, 드라마 처럼 원작이 있는 작품을 선호해왔는데 서사적인 한계가 없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웹툰에 신선함을 느껴서이며 웹툰은 다른 사람의 개입 여지가 적어 창작자의 상상으로 비교적 본래대로 구현할 수 있는 완결성이 있어 판타지, 멜로라도 다양한 버전이 가능한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5] 이러한 이유로 현재도 웹툰컬은

지속적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다음의 표는 2007년 이후 2018년까지 제작되고 서울에서 상연된 웹툰컬을 정리한 표이다.

표 1. 웹툰의 뮤지컬로의 전환 사례
(2018 12월, 서울공연 기준)

작품명	제작년도	작가명
위대한 캣츠비	2007	강도하
위대한 캣츠비	2010	강도하
위대한 캣츠비	2011	강도하
도로시 밴드	2014	홍작가
신과 함께_저승편	2015	주호민
무한동력	2015	주호민
위대한 캣츠비 RE:BOOT	2015	강도하
은밀하게 위대하게	2016	hun
찌질의 역사	2017	김풍
위대한 캣츠비 RE:BOOT	2017	김도하
신과 함께_저승편	2017	주호민
은밀하게 위대하게	2017	Hun
신과 함께_저승편	2018	주호민
위대한 캣츠비 RE:BOOT	2018	강도하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대중에게 주목 받고 있는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된 일본과 한국의 뮤지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 세계를 시장으로 보았을 때 2.5 차원 뮤지컬이나 웹툰컬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성인극으로 부가가치성이 높은 상품으로의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또한 보다 발전된 형태를 지닌 일본의 2.5 차원 뮤지컬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시킨다면 지금보다 경쟁력있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 [1] 김희경, “컨버전스와 트랜즈미디어 프랜차이즈의 세계,” 철학과 문화, 제 26 권, p. 103, 2013
- [2] 2.5 차원 뮤지컬 협회 홈페이지.
<https://www.j25musical.jp/>
- [3] 서은영 기자, “2.5 차원 뮤지컬을 아시나요”, 서울경제, 2017.06.10 (검색어: 2.5 차원 뮤지컬) (검색일: 2019.04.10.)
- [4] 서은영 기자, “2.5 차원 뮤지컬을 아시나요”, 서울경제, 2017.06.10 (검색어: 2.5 차원 뮤지컬) (검색일: 2019.04.10.)
- [5] 이재훈 기자, “찌질의 역사, 신과 함께, 위대한 캣츠비 ... 웹툰, 뮤지컬계 잇따른 러브콜 왜?”, 뉴시즈, 2017.06.02 (검색어: 웹툰 뮤지컬), (검색일: 2019.04.15)